

필리핀 민족주의와 미군기지 철수의 재조명

김동엽*

- I. 머리말
- II. 필리핀 민족주의의 형성과 발전
- III. 필리핀 민족주의와 미군기지 철수
- IV. 맺음말: 미군기지 철수의 재인식

I. 머리말

1992년 11월 24일 미 해군함정 벨리우드(Belleau Wood)호가 수빅항을 출발함으로써 1903년에 건설되어 미-필리핀 관계의 중심이자 필리핀 국민들의 애증의 상징이었던 미군기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필리핀내 미군기지의 철수 문제는 기지의 철수를 전후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의미가 조명되고 있다. 미군기지에 관한 협상과 관련하여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지철수 이후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관계와 이해득실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Paez 1985; Greene 1988; Castro-Guevara 1997; Bengzon 1997). 미군기지들의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역할과 이에 부수되는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해전쟁과 같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의 미군기지의 의미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Jimenez and

* 연세대학교 및 중앙대학교 강사

Javier 1988; Simbulan 1983, 1988; FSI 1898). 사회주의 성향의 논자들은 미군기지를 제국주의의 전초기지로써 필리핀내 친미 독재정권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신식민지적 수탈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묘사되고 있다(Sison 1989).

본 논문은 필리핀 내 미군기지의 철수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반론의 의미보다는 또 다른 시각에서 이 역사적 사건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필리핀 민족주의의 형성과 이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미군기지의 철수에 함축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필리핀내 미군기지의 철수가 단순히 반미감정에 기인한 미-필리핀 동맹관계의 파국이라든가, 필리핀 정부의 과도한 경제적 보상요구에 대한 미국의 거부라든가, 혹은 미국이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안보적 위협의 감소와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내외의 군사기지에 대한 축소의 한 과정이라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논쟁보다는 하나의 “상상의 정치공동체”로서의 필리핀 민족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앤더슨(Anderson 1983, 16-19)에 따르면 상상의 공동체로서 민족은 세 가지 의미로써 상상되어진다고 했다. 첫째로, 민족은 범위가 있는 한정된 의미로서 사용되면 그 범위 너머에는 다른 민족이 존재한다는 제한적(Limited) 의미로 상상되고; 둘째로, 민족이라는 개념은 신의 뜻을 가정해서 뒷받침되던 봉건적 상하 계층구조에 대한 정통성을 파괴하는 계몽과 혁명의 시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주권(Sovereign)의 의미로서 상상되고; 셋째로, 비록 사회적 현실이 불평등과 착취의 상황에 있을 지라도 민족이라는 개념의 근저에는 수평적인 동료애(Community)로서 상상이 된다. 민족주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민족의 자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은 민족을 창조해 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민족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한 18세기 말경은 종교적 신념이 인간성의 자각과 함께 이성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종교의 한 기능으로 제공되었던 인간의 불멸성의 상징인 영혼구원이나 파라다이스와 같은 의미가 쇠퇴

하고, 이러한 연속성과 불멸성이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에 이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민족”이라는 개념은 기억너머의 과거로부터 시작되어 끝을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영원불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민족”은 이처럼 개개인의 출생의 우연성을 숙명으로 만들고 죽음과 함께 종결되는 유한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 계속성의 의미를 부여한다.

본 논문의 전개는 우선 필리핀 민족주의의 형성과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필리핀 민족주의의 창조적 전개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마-필리핀 전쟁과 그 후에 전개되는 양국관계를 중심으로 논하였고, 미군기지의 철수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1980년대를 중심으로 반미-반독재 운동의 전개과정, 기지와 관련된 양국간의 협상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필리핀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필리핀내 미군기지의 철수가 같은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해 보았다.

II. 필리핀 민족주의의 형성과 발전

상상의 정치공동체로써 필리핀의 뿌리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리핀 역사학자들 사이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페인 식민지가 건설되기 직전에는 군도의 남단에 있는 민다나오 섬을 중심으로 두 개의 술탄(Sultan)이 다투(Datu)를 정점으로 한 정치적 집단 체제를 갖추고 그 세력을 마닐라에까지 펼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슬람 공동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부족단위로 흩어져 있었다. 군도에 대한 스페인의 식민지 정복이 본격화된 1965년 이후 필리핀이라는 국호가 사용되었으며 남부의 이슬람 지역과 일부 산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식민치하의 통합된 정치공동체가 시작되었다. 일부 진보적 역사학자에 의하면 스페인의 식민지화는 군도에서 자체의 토속적 사

회의 진화를 가로막았고 외부세력에 의해 계층적 구조를 가진 사회로 전이되었다고 설명한다(Contantino 1975). 이후 19세기말 이전까지 있어왔던 식민통치에 대한 간헐적인 저항은 통합된 필리핀 민족의 독립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부족단위의 투쟁이었고, 스페인 식민정부의 부족 간 분열정책은 필리핀 국민이 하나의 민족으로 상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¹⁾

필리핀에서 독립된 민족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의 개혁운동(Propaganda Movement)의 시기였다.²⁾ 이 시기에 개혁운동을 주도한 중심세력은 필리핀 태생의 카톨릭 성직자나 일부 상류층 자제들로서 유럽에서 근대식 교육과 더불어 당시 서구를 풍미하던 자유주의 사상을 접하고 귀국하여 식민지의 억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운동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로는 필리핀 민족주의의 대부로 추앙되고 있는 리잘(Jose Rizal)이다. 리잘의 두 소설 *Noli Me Tangere* (1887)와 *El Filibuster* (1891)는 모순된 식민지 사회에 사는 지식인으로서의 고민과 좌절, 그리고 투쟁정신을 나타낸 것으로써 스페인어로 쓰여진 이 소설은 개혁운동을 하던 지식인들에 의해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리잘은 무장독립투쟁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으며, 당시 그의 무장독립투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불참에도 불구하고 식민정부에 의해 체포되고 비밀결사조직(Katipunan)의 배후로 낙인되어 처형당하였다(Lumbera 1996).

이와 같이 필리핀 민족주의는 식민통치자들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식민본국민과의 동등한 대우를 주장하는 개혁운동에서 시작되었다.

1) 스페인 식민통치자들은 한 부족의 정벌이나 반란에 대한 진압에 다른 부족의 인력을 동원함으로써 부족간의 반목을 조장하는 정책을 펼쳤다.

2) 식민본국에서 파송된 성직자와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던 세 명의 필리핀 민족주의 성직자들이 1872년 처형되는 사건과 그 이후 필리핀 엘리트들 사이에 전개되었던 운동을 필리핀 민족주의 운동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Ileto 1998). Propaganda Movement(Reform Movement 라고도 함) 시기는 민족주의 성직자가 처형된 1872년부터 카티푸난에 의해 무장독립 투쟁이 시작된 1896년까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엘리트주도의 개혁운동은 새로운 민족주의 사상을 창조하는데 한계점을 들어냈다. 필리핀 현지어인 타갈로그(Tagalog)에서 자유(Freedom)는 칼라야안(Kalayaan)으로 표현되는데, 이 말의 근원인 라야우(Layaw)는 “근심이 없는 태평한 상태”로써 부모에 의해 모든 것이 제공되는 평안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처럼 필리핀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사회의 상층부에 있는 자들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을 게을리함으로써 야기되는 억압과 고통에 대한 도덕적인 비판으로 해석되었다. 자유의 추구점이 사회적 계층구조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의존이나 종속의 상태를 종식시키는 의미에서라기 보다는 현존의 질서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었다(Rafael 2000, 12). 이러한 사상은 절대신에 복종하는 종교인의 관념이 현실세계에 적용되고 있으며, 필리핀인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토착화된 카톨릭의 영향이 필리핀 민족주의 운동 초기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했음을 볼 수 있다.

많은 이들은 필리핀 민족주의 운동의 뿌리를 민족의 독립을 위해 결성된 비밀결사조직인 까티푸난(Katipunan)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까티푸난은 1896년에 결사조직을 이끌던 보나파쇼(Andres Bonifacio)에 의해 공식적으로 무장독립투쟁을 선언하였고, 1898년 아귀날도(Emilion Aguinaldo)를 수반으로 선포된 독립정부의 기반이 되었다. 이 혁명정부의 사상은 필리핀 최초의 근대식 헌법인 말로스 헌법(Malolos Constitution)에 나타나 있다. 이 헌법의 입안자이자 혁명정부의 핵심인물이었던 마비니(Apolinario Mabini)에 따르면 민족의 개념은 이기주의와 파벌주의를 넘어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데 있고, 이의 구현을 위해 혁명그룹내의 도덕적 쇄신을 통한 정치적 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독립된 국가의 국민은 형제애와 평등사상에서 정신적, 물질적 만족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Sicat 1996, 420).

이러한 초기 혁명적 민족주의의 정신은 이후 그 성격이 혁명정부로부터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사회 엘리트그룹에 의해 변화하게 된다. 초

기 독립운동의 사상이 평등한 사회의 구현과 같은 급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 새롭게 정립된 민족주의는 일반 민중들이 상상하는 개념과는 거리가 먼 의미로 규정되고 제도화하게 된다. 이제는 “민족”이라는 이름 하에 민중에게는 착취적이고 소수 엘리트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치, 사회적 제도가 정착되었고, 이러한 왜곡된 상상의 공동체는 지주계층에 의한 민중의 수탈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이용되었다(Sicat 1996, 421). 초기의 필리핀 혁명정신의 상실과 이후 전개되는 민중의 역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민족”의 개념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으로써 “미완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계속된 투쟁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Ileto, 1998). 이처럼 필리핀 민족주의의 맹아는 식민주의자들과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 왜곡되고 분열된 상태에서 의존적 민족주의가 공식적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³⁾로 자리잡게 된다.

필리핀 민족주의 독립운동은 미국과의 전쟁에 패배한 이후 미국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그 모습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이러한 혁명적 민족주의 정신은 1950년대 필리핀 민족주의 정치가 렉토(Claro M. Recto)에 의해 부활되었다. 그는 정치적 의미에서 민족주의 운동은 정치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이끄는 공화국에 의해 민족의 독립이 전국민에게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전체국민들로부터 신망과 지원을 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투쟁으로 보았다(Abinales, 2001). 렉토의 정치적 투쟁은 즉각적인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아곤실로(Teodore Agoncillo)와 알폰소(Oscar Alfonso)와 같은 역사학자들에 의한 필리핀 역사의 재해석과 더불어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까지 민족주의 학생운동의 정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1956년에 발행된 아곤실로의 책

3) 공식적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는 민족국가로 새롭게 태어나는 상상의 정치공동체에서 기존의 지위가 위협 받고 소외될 것을 우려하는 사회의 지배적 그룹들에 의해 도입되는 전략으로써 근본적으로 보수적이며, 대중에 의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민족주의에 대한 반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예로는 민족주의 운동 초기 왕조와 민족을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여 이용하려던 왕조들의 노력들로 나타났다(Anderson 1983).

The Revolt of the Masses : The Story of Bonifacio and the Katipunan
 은 1898년 필리핀 독립정부의 연구를 지배엘리트와 민중의 시점에서 재해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는 새로운 혁명사조를 만들어 내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Ileto 1998).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한 혁명적 민족주의 사상은 1972년 계엄령의 선포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의 공식적 민족주의인 “민주주의 혁명”에 의해 대체되었다. 마르코스는 독립운동 당시의 민족주의 사상은 독립투쟁이라는 혁명적 시대상황을 대변하는 것이고 현재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민주주의 혁명을 이루어야 하며, 그것이 필리핀 국민의 역사적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한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발전과 국가의 근대화에 주력할 것을 요청했다(Ileto 1998). 그러나 마르코스는 통치 행태에 있어서 오랜 식민지 치하에서 형성되어 온 종속적 민족주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마르코스와 영부인 이멜다는 대중들에게 끝없는 힘과 영원한 아름다움의 상징으로써 표현되었고, 사회계층구조의 정점에 있는 후원자(Patron)로서의 이미지를 대변하였다(Rafael 2000, 141).

1970년대 마르코스식 민족주의는 독재정권의 장기화와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1980년대 초반 독재 대중운동을 불러옴으로써 위기를 맞게 되었다. 마르코스 정권을 무너뜨린 1986년 에드사(Epifanio de los Santos Avenue, or EDSA) 국민봉기는 그 역사적 의미가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민족주의자들의 승리이자 필리핀 민족주의 혁명의 완성으로 보는 시각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당시 반독재 운동은 필리핀 지도자들 사이에 민중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 개념에 동조하는 많은 지도자들을 이후 정치의 전면에 등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미군기지 철수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필리핀 민족주의와 미군기지 철수

1. 필리핀 민족주의와 미국

미국이 필리핀 민족주의의 창조적 발전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양국가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널리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은 필리핀의 독립과 근대국가 설립에 후원자였으며, 이후 근대적 교육과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군과 맞서서 함께 싸운 혈맹이자 필리핀 영토를 일본의 침략에서 구원해 준 해방자의 모습이었다. 현재 필리핀 국민들은 330년이 넘게 지배해온 스페인 식민지의 언어와 생활방식 보다는 40여 년간 식민통치를 했던 미국의 언어와 생활방식에 더욱 더 친밀해져 있다. 필리핀의 대다수 국민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미국은 과연 필리핀에게는 큰형(Big Brother)으로 묘사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1991년 그 동안 양국관계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던 필리핀내 미군기지의 철수가 결정되었다. 그것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필리핀 상원의원들이 양국 정부간에 합의한 조약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결과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는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관계를 단순히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역사적 진화과정을 거쳐온 필리핀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스페인과 전쟁을 시작한 후 쿠바에서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을 무렵 필리핀 혁명정부는 스페인 식민통치자와의 합의에 따라 홍콩에 망명 중에 있었다. 미국이 스페인 군함을 마닐라 해역에서 굴복시켰던 1898년 5월 필리핀 혁명정부는 국가의 독립에 대한 꿈을 안고 귀국했다. 미군이 수도의 안전을 이유로 필리핀 혁명군의 마닐라 진입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1898년 6월 12일 혁명정부의 수반인 아귀

날도의 고향 까비테(Cavite)에서 필리핀의 독립을 선언하고, 그 해 9월 의회를 소집하는 등 국가설립의 절차를 밟아 나갔다. 스페인과의 전쟁을 승리로 끝낸 미국은 잠시 필리핀 혁명정부와 유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스페인과의 전후 협상을 1898년 12월 파리조약으로 마무리했다. 이 조약에는 미국이 2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스페인에 지불하고 필리핀의 모든 주권을 인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미국은 필리핀에 대해 유화적 동화정책(Policy of Benevolent Assimilation)을 중심골격으로 하여 본격적인 식민지 정책에 들어갔다. 이처럼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는 1899년 2월 4일 필리핀 보초병이 미군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을 계기로 미-필리핀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은 미군 6,000여명과 200,000명에 달하는 필리핀인 희생자를 내고 1901년 3월에 필리핀 혁명정부의 항복으로 종료되었다(Tan 2002). 전쟁의 최대 희생자는 필리핀 민족주의였다. 전후 미국은 선동에 관한 법(Sedition Law)을 제정하여 독립이나 미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지지 혹은 선동하는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비록 평화적 방법일지라도 사형이나 장기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Constantino 1975, 251). 필리핀 민족주의의 맹아였던 혁명정부의 필리핀 민족에 대한 이상(理想)은 무시되었고, 미국에게 우호적이고 미국에 의한 필리핀 합병을 지지하는 필리핀 부유층 엘리트들로 구성된 연방정당(Federal Party)에 의해 새로운 공식적 민족주의가 등장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민족주의는 필리핀 국민들이 새로운 식민통치자를 인정하고 그들의 가치체계에 결합하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사회적 계층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국가의 독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며, 1946년 국가의 독립 후에도 기존의 사회적 구조를 더욱 굳어지게 만들었다.

정치역사학자 코프스(Onofre D. Corpus)에 따르면 미-필리핀 전쟁의 결과는 필리핀 국민들을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새로운 식민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류와 이를 거부하는 부류로 갈라지게 만들었

다. 그 결과 사회적 분열은 그 골이 더욱 깊어졌으며 새로운 지배적 가치체제로써 그간의 스페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발전해온 필리핀 토착문화는 미국식의 가치와 형식, 그리고 생활습관으로 변화하였다. 미국의 식민지적 동화정책에 반발하였던 이슬람 세력과 일부 사회적 그룹들은 새로운 사회건설에서 소외의 길을 걷게 되었다(Tan 2002). 미국의 필리핀 동화정책은 일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필리핀 일반 국민들에게 어떠한 시각으로 인식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마-필리핀 전쟁 기간 동안에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필리핀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적대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대부분이 군인들로서 점령군의 이미지로 필리핀 국민들에게 인식되었다. 전쟁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미국의 식민주의 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한 1901년부터는 필리핀내의 미국인의 직업적인 성향도 다양화되었으며 그간의 적대적인 감정이 줄어드는 시기를 맞게 된다. 초기 미 식민지 정책의 중점이 필리핀 사회의 근대적 기반 시설의 건설에 두었으므로 미국인들이 근대적 학교의 교육과 기타 여러 분야의 사업에 종사함으로써 미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는 교사와 학생, 고용인과 종업원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그간에 가졌던 군인으로서의 미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 얼마간의 학습기간을 거쳐서 독립국가로 탄생시킬 것을 약속하고 점진적인 국가 권력 이양이 시작된 1913년부터는 필리핀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는 후견인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확립되었고 상호우호의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이 시기부터는 정치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화적인 영향도 필리핀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게 되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의 점령기간은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 친미성향이 더욱 더 뿌리 깊게 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McCallus 1999).

1946년 독립국가로 탄생하면서 미국과의 사이에 여러 가지 경제적 군사적 상호조약 등으로 친밀한 상호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독

립 이후 국내 경제가 파탄지경에 놓이게 되고, 그 원인을 일부에 의해 미국의 신 식민주의적 수탈정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부적으로 반미감정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반미감정은 1968년부터 1972년 사이에 급진적 학생들을 중심으로 극렬한 반미운동으로 표현되었다. 1972년 계엄령의 선포와 함께 독재정권의 영구화를 모색하던 마르코스 정권을 미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까지 뒷받침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마르코스 독재정권과 미국을 동일시하는 경향으로 발전하여 1980년대에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반미-반독재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1986년에 출범한 아키노 정부 내에는 미국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공존함으로써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데 내부적인 불협화음을 낳기도 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반미감정 또한 수그러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여러 차례의 미군기지 철수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도 보여 주듯이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미군기지의 지속적인 유지에 찬성하는 것을 봐서도 알 수 있다. 이후 반미 대중운동의 주류는 사회주의 계열의 필리핀 공산당(Communist Party of the Philippines or CPP)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일반 대중들로부터는 정서적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이처럼 미국은 식민지 정책으로 필리핀 민족주의의 역사적 흐름을 바꾸어 놓았고, 필리핀인들의 상상의 공동체 속에 자리함으로써 스페인 식민통치 이후 다시금 의존적 민족주의가 필리핀에 다시금 자리잡게 만들었다.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 미국은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약간의 굴곡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인식이 계속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필리핀 관계의 중심이었던 미군기지의 철수가 결정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것이 필리핀 정치의 주류를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그 명맥을 유지해 오던 필리핀 내 반미주의의 세력의 본질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필리핀 내 반미주의 세력의 형성과 발전

필리핀의 반미주의 주도세력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사회주의 혁명노선을 견지하는 CPP 계열의 그룹들이고, 다른 하나는 필리핀 혁명정부의 이상을 이어받고 독립 후 렉토(Claro M. Recto)의 사상으로 재무장한 필리핀 민족주의 그룹을 들 수 있다. 사회주의 노선은 그 투쟁의 목표와 성향에 따라 스페인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무장 독립투쟁을 펼쳤던 보내파소의 사회혁명에 대한 이상과 별 차이가 없었다. 필리핀에서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정당이 건설된 것은 1930년대에 필리핀 공산당(Partido Komunista ng Pilipinas or PKP)이 조직되면서부터였다. 일제 점령기간 동안에는 혹(Hukbalahap) 이라고 하는 농민저항군을 조직하여 무장 게릴라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본의 점령기간 동안 국내에서 활동하던 저항군 중의 최대 조직이었으며, 일본군과 영합한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본군의 항복과 함께 그간의 투쟁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몰수하여 관리하고 있던 토지들의 정의로운 분배 등을 기대하였지만, 다시 진주한 미군은 이들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주들의 편에서 잃었던 토지를 되찾는 데 힘을 실어 주었다. 이와 같은 전후 미국의 사회 엘리트 편향적인 정책은 미국정부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당시 태평양지역 전쟁의 영웅이었던 맥아더에 의한 독단적인 정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Carlson 1995). 독립 이후에도 사회주의 세력은 농민운동과 노조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세력의 급속한 증가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1950년대 초 미국의 지원을 받은 필리핀 정부의 강력한 진압작전의 성공으로 그 세력을 상실하게 되었다(Weekley 2001).

사회주의 세력은 1960년대에 다시 그 세력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새로운 운동을 주도하였던 시손(Jose Maria Sison)은 1960년대에 렉토의 민족주의 사상을 이용함으로써 젊은 층의 민족주의자들을 영입하여 PKP의 청년조직 리더가 되었다. 그는 또한 당내의 부르조아

민족주의자, 노조 및 농민단체의 리더들, 그리고 급진성향의 학생들을 하나로 묶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후 급진 학생그룹은 PKP내 부르조아 민족주의자들과 노선을 달리하면서 시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필리핀 공산당(CPP)을 조직했다. 이들의 사상에 의하면 렉토는 민족주의의 진보적인 측면으로써의 반제국주의를 대변할 뿐, 사회의 모든 계층을 망라하는 민족민주주의의 이념 아래 무산계급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봤다. 특히 렉토는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적인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합법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민족자본가와 지식인들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렉토는 사회의 엘리트 계층을 대변할 뿐 농민의 문제와 제국주의와의 관계성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의 봉건적 농업체제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수탈의 일환으로 값싼 노동력과 원자재의 유지와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투쟁의 방향을 미 제국주의와 국내 봉건주의적 체제의 고리를 끊는 것에 두었다.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 위에 토지를 기반으로 한 봉건적 생산관계의 타파를 위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8년에는 단테(Commander Dante)가 이끌던 이전의 농민 반란군(Hukbalahap)과 시손의 급진 학생그룹이 연합하여 무장투쟁조직(New People's Army or NPA)를 결성하여 도시 및 농촌 게릴라 운동을 전개하였다(Abinales 2001).

다른 한 부류는 독립 이후 필리핀 민족주의자들을 들 수 있다. 그 중심인물로는 렉토를 꼽을 수 있는데, 그는 필리핀 정치흐름에서 친미 성향이 지배적일 당시 미국의 신 식민주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정치인 중의 하나였다. 그는 필리핀 내의 미군기지들, 미국과의 불평등한 경제 및 군사조약들, 그리고 미국에 의한 필리핀내의 경제력 장악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필리핀 민족주의의 개념과 그 비전을 재정립함으로써 이후 보수와 혁신을 망라하여 필리핀 민족주의의 사상적인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의 민족주의는 통합된 필리핀으로써의 자긍심에 근거하고 있다. 그의 이념적인 바탕은 1896년 보네파쇼에 의한 독립혁명정

신, 1898년 이귀날도에 의한 혁명공화국선언의 정신, 미국의 식민지 하에서의 민족정당(Nationalista Party)의 민족독립사상과 연방정권(Commonwealth Government)의 제1공화국, 일제치하의 제2공화국, 그리고 독립 후 제3공화국 등 민족의 역사적 흐름 전체를 민족주의의 틀 안으로 끌어들었다.

렉토는 필리핀내 미군기지들이 민족의 주권을 훼손하고, 미국의 적대국가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필리핀 정부의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자세와 국민들의 생활방식과 습관들이 목적성 없이 미국화 되어가는 행태는 필리핀 고유의 전통적인 가치들을 무시하고 신식민주의적 사상을 뿌리내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영향이 정치, 경제, 사회를 망라한 다방면적인 것으로 필리핀 민족주의의 대안도 다방면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장 시급한 목표로는 필리핀 사람들에 의한 국내자본의 장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1950년대의 필리핀 제일주의(Filipino First Policy)⁴⁾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를 필리핀 정치경제의 전통적인 틀을 극복하지 못했고, 미국과 국내의 매판 자본가들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Arbinales 2001).

렉토의 사상은 리차우코(Alejandro Lichauco)와 디오크노(Jose W. Diokno)에 의해 보다 구체적인 민족주의 정치경제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리차우코는 민족경제론을 주창하면서 국제원조기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이 제국주의적 수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제자본과 국내 엘리트와의 관계를 신식민주의적 관계로 분석하여 비판하였다. 그는 강한 국가론으로 국가의 산업화를 이루어 민족자본을 양성하는 것을 중심과제로 삼았으며, 수입대체산업(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의 육성을 그

4) 1950년대 가르시아(Carlos P. Garcia) 정권에 의해 시행되었던 경제정책으로 필리핀인 사업가들에게 각종 혜택을 줌으로써 국내산업이 필리핀인들에 의해 지배될 수 있도록 유도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디오크노는 미군기지 문제를 인권의 문제, 군축문제,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있어 필리핀내 미군기지의 역할 등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는 민족주의의 감성적인 부분을 분석하여 이를 일반 대중에게 널리 전파하는데 가장 성공적인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카리스마와 능숙한 웅변술로 일반 대중들 모두에게 필리핀 민족에 대한 사랑을 불러 일으키게 만들었다. 마르코스가 독재정권을 수립하자 상원의원직에서 물러나 민족주의적 반독재, 비폭력, 합법투쟁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는 무장혁명을 질책하지는 않았지만, 강렬하면서도 평화적인 저항이 반독재세력의 전략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봤다(Arbinales 2001).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두 세력은 반독재·반미 운동에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도 하였지만 그 근본적인 사상적 차이로 인하여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 1970년대 초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반독재·반미 운동은 사회주의 사상이 그 주류를 이루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한 사회주의 성향의 운동은 마르코스 정권의 공고화와 영구화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두 노선간의 사상투쟁에서 1980년대의 반독재·반미 대중운동의 주도권은 민족주의 진영으로 넘어 가게 된다. 사회주의 진영은 민족주의 사상가들에 비해 이념에 기초한 논리의 전개가 미약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1950년대 이후 필리핀 민족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가 사회주의자가 아닌 렉토와 같은 민족주의자에 의해 개념화되었고, 이의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은 토지 소유권 문제와 맥을 같이하여 제국주의, 봉건주의, 그리고 관료적 자본주의 등을 그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후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 부르주아적 민족주의 사상이 급속히 번져가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전술을 전개함으로써 고립화의 길을 가게 되었다(Weekley 2001; Arbinales 2001).

미국은 그 동안 스페인 식민통치 아래 있던 전통적인 필리핀사회에 근대적 교육을 도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정치체제, 즉 민주주의

에 대한 학습과정을 거친 후 독립국가로 자립시켜 준 스승이자 후원자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미국은 필리핀의 정치와 경제의 모든 분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독립 이후 필리핀이 경제적으로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자, 1950년에는 특별경제위원회(Bell Mission)를 파송하여 실태파악과 함께 대처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1950년대에는 가르시아(Carlos P. Garcia)정권의 필리핀인 우선정책을 미국의 경제원칙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필리핀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해 주었으며, 이후 자유주의 경제원칙을 표방하는 당시 부통령 마카파갈(Diosdado Macapagal)이 가르시아에 도전하여 대통령이 되도록 지원하였다는 사실은 비밀 아닌 비밀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필리핀 정치의 흐름을 좌우하는 미국의 힘은 이러한 상호관계에서 이득을 취하는 국내 전통 토지엘리트들에 의해 지원되기도 하였지만, 경제적으로 자립기반이 없는 필리핀 정부로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경제 원조가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미국과 필리핀정권은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국민들 또한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르코스의 장기간에 걸친 독재정치와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마르코스 독재정권 하에 있던 1970년대에 IMF와 WB를 통해 필리핀에 여러가지 형태로 유입된 자금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수준이었다. 1950년부터 1972년까지 22년간 필리핀은 WB로부터 총 3억 2,600만 달러를 지원 받았으나 1972년부터 1981년까지 단 10년간 같은 기관에서 총 26억 달러를 지원 받았다(Salgado 1985, 59). 미국의 마르코스 정권에 대한 군사적 지원도 제임스 선포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1973년에서 1976년까지 총 1억 6,630만 달러로 직전의 4년 동안(1969-1972)의 8,080만 달러의 두 배가 넘는 지원을 받았다. 또한 제임스 선포 이전에는 이용이 불가능했던 미국의 해외군사장비판매를 위한 여신제도(U.S. Foreign Military Sales(FMS) credit program)의 이용도 허

가되었다. 계엄기간 중 4년 동안 미국에서 필리핀에 판매한 군사장비가 7,210만 달러로 계엄령 이전 22년 동안의 총 판매액의 9배에 해당하는 분량이었다(Paez 1985, 54). 이러한 사실은 곧 미국이 마르코스 독재정권을 뒷받침해 주고 유지시켜준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로 1980년대 반정부 운동의 구호가 “반미-반독재 투쟁”으로 귀결되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코스 독재정권 후반부에는 국내의 산업이 “국가”라는 이름을 내세워 소수 마르코스 측근에게 집중됨에 따라, 반 마르코스 정서는 일반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엘리트들에게도 번지기 시작했다.

광범위하게 번지는 체제 불만세력들을 하나로 결집시킨 계기는 1983년 8월 21일 마르코스 독재정권을 피해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귀국하던 야당지도자 아키노(Benigno Aquino Jr.) 전 상원의원이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암살당하는 사건이었다. 그 후 반미-반독재 운동은 사회계층을 뛰어넘고 이념을 초월한 전국민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정치세력화 하려는 여러 조직들이 생겨났으며, 이들이 연합하여 마르코스 독재정권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광범위한 대중적 지원을 받고 있던 반독재 연합 내부에서는 이념적인 차이에 따라 운동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다툼 또한 치열하였다. 이러한 이념적인 차이점은 마르코스가 선언한 임시선거(1986년 대통령선거)에 참여여부를 놓고 극명히 드러났다. 필리핀 공산당(CPP) 계열의 조직들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마르코스 독재정권의 정통성을 추인해 주는 결과만 될 뿐, 체제변혁의 계기가 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선거 보이콧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계열은 미국의 정책에 대한 인식도 달리고 있었다. 미국이 결국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마르코스 독재정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독재정권에게 현재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는 레이건 미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필리핀의 국가적 병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미 제국주의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국가의 근본적인 병폐에 대한 치유없이 단지 마르코스 정권을 퇴치하는 것은

미 제국주의에 의해 불신임된 한 정권에서 미국의 신망을 얻은 또 다른 정권으로 권력이 이동하는 결과 밖에 안 된다고 분석했다(Sison 1989). 그러면서도 만약 선거에 불참할 경우 반 마르코스 정권타도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비쳐질 우려가 있어 CPP 내에 불협화음을 낳았으며 개별적인 차원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등 조직의 결집력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Weekley 2001).

다른 한편으로 민족주의 개혁론자들은 선거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입장을 취하였다. 대중운동의 초기 단계에서는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고려하여 1984년 말 반독재연합 지도자들이 미군철수를 공론화한 “야당연합원칙”을 선언하는 등 반미정서를 담는 듯 했으나, 곧 이러한 입장들은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선거참여를 선언한 진영에서는 미 제국주의 문제를 더 이상 부각시키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마르코스 독재정권 타도에만 운동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더 불어 마르코스 독재정권에 대해 미국이 압력을 가해 줄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이 독재정권 타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을 것으로 분석된다(Paez 1985, 258). 두 진영간의 차이를 더욱 깊게 만든 것은 마르코스 정권의 정치적 전술이 그 힘을 발휘하면서부터이다. 당시 국민적인 여론이 반마르코스과 친마르코스 진영으로 나누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자, 이러한 흐름을 공산주의와 반공산주의의 대립으로 재설정함으로써 반독재운동의 결집력을 분산하려는 전술을 전개하였다. 사회 불안요소들에 힘입어 공산주의 세력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의 기득권층이 점차 이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반 마르코스 세력의 강력한 지도자 중의 하나였던 필리핀 카톨릭 지도자 신(Jaime L. Sin)추기경도 내전의 위협을 막기 위해 교회와 국민이 국가권력과 함께 타협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반공산주의 운동은 반마르코스 진영으로도 급속히 번져갔으며, 이는 반독재 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정당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합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사이에도 영향

력을 발휘하였다(Paez 1985).

1986년 EDSA 국민봉기로 인해 아키노(Corazon Aquino) 민주정권이 탄생하자 사회주의 진영은 더욱 더 고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는 CPP가 반 마르크스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행태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마르크스 정권 이후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그 운동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함으로써 기인했다는 분석이 있다(Weekley 2001, 261-262). CPP는 미국이 결국 마르크스 정권을 유지함으로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미국은 결과적으로 단순히 정국의 안정 그 자체를 추구하였고, 그것이 마르크스이건 아키노이건 문제시 하지 않았다. 또한 선거 보이콧으로 인해 대중과의 거리가 멀어졌으며 마르크스 이후에 도래한 민주정권하에서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전략적인 준비를 갖추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었다.

1980년대의 반미주의는 마르크스 독재정권의 타도와 맞물려 불붙는 듯 하였으나, 운동의 주도세력들이 독재정권 타도라는 절대절명의 명제 앞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부터 반미주의의 목소리는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반미주의의 전위대 역할을 하였던 사회주의 계열의 조직들은 이러한 정치적 과정에서 소외의 길을 걷게 되고, 민주정권 수립 이후에 전개한 미국-아키노 정권타도운동도 대중의 호응을 받지 못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이 극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처럼 반미주의는 일반국민들에게 정치적 세력으로써 결집력을 발휘할 정도로 발전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반독재 대중운동을 통하여 사회 지도층과 민중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었고,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 민족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종속적 관계 하에 상상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도층 인사들의 인식의 변화는 민족주의의 창조적 발전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3. 미군기지 철수 문제

필리핀 민족주의는 많은 제3세계국가들처럼 식민지 치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그 근저에는 반외세의 사상이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주의 사상은 국가의 독립과 같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민족의 창조적 발전 과정으로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 결과, 필리핀 민족주의와 반미, 반외세를 동일시하는 시각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고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구분 또한 모호하게 되었다. 이는 진정으로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는 민족주의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장기적인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행태가 일시적으로 반민족주의로 비추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리핀 내 미군기지 철수 문제를 분석할 때 미군기지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의 유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민족주의자와 반민족주의자라는 이분법적 도식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미군기지의 철수 문제는 필리핀 민족주의의 창조적인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필리핀 내의 미군기지들은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에 있어 왔다. 이러한 논리는 심불란(Simbulan 1988, 35)이 인용한 미국의 한 정부관계자의 말에서 잘 나타나 있다. 미국이 필리핀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을 1에서 10까지의 스케일로 나타낼 때 미군기지가 6.5에 달하고, 미국의 경제적 이해가 3.5, 그리고 필리핀의 주권과 인권을 1 정도에 머문다고 표현했다.⁵⁾ 이처럼 미군기지는 전후 필

5) 1986년 2월 마르코스와 아키노 사이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은 선거부정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양측 모두에게 선거부정이 있었다고 말하므로 마르코스의 선거승리를 간접 인정하면서 그의 마르코스 지원은 미군기지의 지속적인 유지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필리핀에 관하여는 미군기지 이외에 아무것도 모른다(관심이 없다, 역자)”라고 말했다. 1989년 당시 미 상원 야당 원내총무였던 돌(Robert Dole)은 “미군기지들은 필리핀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시각의 전제가 되며, 우리의 모든 정책들, 즉 외교, 경제, 그리고 지원정책 등의 근간이 될 것이다. 이것은 협박이 아

리핀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국관계의 중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필리핀 내 미군기지의 역사는 미국이 필리핀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진주하면서 시작되었다. 1903년 수빅만에 해군기지(Subic Naval Station)를 건설하여 미 해병들의 훈련기지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10년에는 클라크에 공군기지(Clark Air Base)를 세워 제1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하던 미공군들의 훈련기지로 사용하였다. 당시는 미국이 필리핀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필리핀 영토 내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이용하는 것이 문제시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식민통치 초기부터 미국은 필리핀을 주권국가로 독립시켜 줄 것을 약속했으므로 미국의 식민통치가 끝난 이후에 주둔해 있는 미군의 처리문제를 놓고 필리핀 정치 지도자들과 협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1933년 미국은 필리핀에 군대를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필리핀의 독립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필리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자, 이를 철회하고, 결국 1934년에 타이딩-맥더피조약(Tyding-McDuffie Act)을 통해 미군기지를 유지한다는 조항 없이 1946년 7월 4일 필리핀을 독립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한 내용은 1935년에 제정된 필리핀 헌법에도 명기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으로 이러한 조약의 내용에 변화가 생겼다. 일본의 점령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 1944년에 미국정부는 필리핀 망명정부로부터 필리핀의 독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군기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약속 받았다(Simbulan 1983, 13-14).

1946년 독립과 더불어 시작된 군사기지에 관한 논의는 필리핀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하여 독립국가의 최초 대통령이었던 로하스(Manuel Roxas)도 초기에는 미군기지의 계속적인 유지에 반대했으나, 미국에 의해 세워지고 유지되는

나라 사실 그 자체이다"라고 했다(Bengzon, 1997, 12).

자신의 정권이 홀로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소득의 주요원천인 미군의 철수를 놓고 태도를 선화하였고, 결국 트루만 행정부와 협상을 제기하여 1947년 3월 4일 기지협정(Military Bases Agreement)에 조인함으로써 필리핀내 미군기지에 대한 99년간의 무상 불하가 시작되었다(Carlson 1995, 138-139). 마르코스 대통령의 재임 초기인 1966년에는 다시 기지협상을 제기하여 기지유보 기간을 25년(1991년까지)으로 감축하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기지사용과 관련한 보상문제를 제기하여 1979년에 차후 5년간 5억 달러의 경제지원을 약속 받았고, 매 5년마다 재협상할 것을 명시하였다. 1983년 협상에서는 지원규모를 9억 달러로 증액시켰으며 기지조약이 만료되는 1991년을 3년 앞둔 1988년의 협상에서는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렬되었다(Greene 1988, 4).

이와 같이 필리핀의 미군기지는 일본군의 점령기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약속과 1947년의 로하스 대통령의 정권유지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지협약의 결과로써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권국가들 간의 국제협약으로써의 정당성이 없다고 기지 반대론자들은 끊임없이 주장하였다(Simbulan 1988, 16; FSI 1989, 117). 이들은 미군기지가 근본적으로 민족의 이익과 존엄, 그리고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협정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미군기지는 미 제국주의의 전초기지로써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식민지적 착취의 주된 원동력을 제공한다고 봤다(Sison 1989). 이러한 사회주의 계열 주도의 반 제국주의 운동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이 필리핀에 있는 군사기지들을 베트남 전쟁의 발진기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대중들의 공감을 얻었다. 특히 이들은 미군기지의 근본적인 목적이 신식민주의에 있으므로 기지와 관련된 지역적인 결과나 일시적인 위협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되며, 기지 정책의 본질에 투쟁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경제의 저발전과 기지를 매개로한 미국의 내정간섭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며, 미국은 필리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식민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예

견했다(Sison 1989, 154-155).

다른 한편으로 일부 민족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군기지들의 유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은 미군기지가 필리핀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기존의 협정이 미국의 일방적인 것이어서 미국이 필리핀의 요구들을 충분히 들어주는 조건 하에서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주의자들은 양국간의 관계나 기지철수로 인해 야기될 파장 등을 고려하여 필리핀 정부가 기꺼이 미국과의 협상에 응해야 하고 요구사항도 적정 수준에서 상호 보완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주의 성향의 필리핀 정치 지도자들은 표면적으로는 민족주의의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했지만 이는 미국과의 관계유지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정치적 라이벌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정치적 제스처로 보는 시각도 있다(Greene 1988).

이처럼 미군기지의 철수와 유지라는 양측의 입장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었으나, 뚜렷하고 확고한 반대론자들의 논리가 그 흐름을 주도하였다. 그들은 기지와 관련된 경제적 이득에 대한 허실과 철수로 인한 일시적 어려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경제 이외의 부가적인 문제점 등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동원하여 부각시켰다.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필리핀 측으로 인도되는 기지관련 지원금의 극히 일부분만이 필리핀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었고, 그 대부분은 기지의 유지와 보수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지 주변 도시들이 산업붐을 이루기는 했지만, 이들 대부분의 산업들은 단순무역이나 유흥업종을 이루었다. 필리핀 국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미군기지와 관련된 사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수익의 35%는 미국정부에 귀속되었으며, 단 한 톨도 필리핀 정부로 유입되지 않았다. 또한 기지에서 유출되는 PX상품들은 정부의 수입원인 수입관세를 회피하고 국내 관련 상품의 시장을 교란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육성에도 지장을 초래했다. 또한 비록 미군의 주둔이 국가의 안정적인 이미지를 높여 타국민들로부터의 투자를 촉진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실제의 현실은 그 주장을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1972년부터 1980년까지 투자로 유입된 자본은 6억 3,500만 달러였는데 그들이 반출해간 금액은 무려 10억 7,800만 달러에 이르렀다. 당장의 기지철수로 인한 국방비의 증원 등 경제적인 압박이 예상되지만, 이는 국가의 안보에 대한 필리핀국민들의 의존심을 증진시키는 결과만 낳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언젠가는 감당해야 할 어려움으로 여겼다(FSI 1989, 110-114)⁶⁾

지역안보의 문제로서 소련과 베트남에 대항하여 지역적인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졌다. 실제로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은 극히 미국에 유리하게 짜여져 있었다. 서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제 7함대 하나만 하여도 군사력 측면에서 압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실제로 필리핀의 미군기지는 선박의 수리나 미군의 훈련용으로 사용할 뿐 이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강조되지 않았다. 적으로부터의 공격이나 또는 선제공격용으로도 기능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대륙간 미사일, B-52 폭격기, 잠수함 기지 등은 모두 팔메에 위치해 있고, 적의 공격을 감지하는 레이더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낮은 전략적인 가치 부여는 기지의 유지가 필리핀의 내정간섭에 주로 이용된다는 이미지를 남게 하였다. 실제로 1972년과 1983년 국내 혼란기 때에 미국이 기지의 안전과 지역의 안보를 위하여 직접 개입할 의사까지 표명한 사실도 있었다. 이러한 경제 안보적인 측면 이외에도 기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즉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매매춘의 공공연한 성행, 어린이 매춘, 성병, 마약, 범죄, 그리고 훈련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주민과의 갈등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악영향들은 홍보하였다(FSI 1989, 115-120; Jimenez et al. 1988). 반면, 기지유보에 찬성하는 부

6) 본 자료는 필리핀 외무부 산하 연구기관(The Research Development Center of the Foreign Service Institute)에서 1989년 출판한 책으로, 당시 친미정권하에서 정부주도로 이와 같이 미군기지에 대한 차선택을 모색하는 객관적인 연구와 이의 공식적인 출판은 놀라운 일이며, 미군기지 철수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류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논리를 전개하지 못하였다. 일부 군사전문가나 민간전략가들을 제외한 대부분 정부관료들은 단순히 기지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과 필리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정도였다(Greene 1988, 13).

이처럼 필리핀 지도층 내부에 미군기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하자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필리핀내의 반 미군기지 운동과 연관된 세력들은 소련과 같은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imbulan 1983, 272).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고 오히려 1980년대 초 필리핀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욱 악화되어 가는 국민들의 생활고와 관련된 사회 전반적인 불만요소들과 연결되어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레이건 행정부가 마르코스 정권에게 기지사용의 대가로 군사지원을 더욱 증가하자, 그 동안 극소수 인사들로 이루어졌던 기지 반대 세력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국민적인 지도자들에게도 번져나갔다. 마르코스 독재정권 반대운동이 한참이던 1984년 말 야당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미군기지를 1991년 이후 철수시킨다는 기본입장의 표현으로 반기지 협약에 공동으로 서명하는 등 거센 반미-반독재 운동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였다. 이 선언에서 반기지 동맹(Anti-Bases Coalition of the Philippines)은 “필리핀내의 미군기지들은 국가의 주권과 존엄에 손상을 입히고, 국민들로 하여금 애국적인 결속을 저해함으로써 미국에게 내정간섭의 빌미를 제공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는 독재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무장화를 촉진하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폐들의 원인이 된다. 또한 필리핀의 전통적인 가치들을 타락시키고 미국의 적대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고 발표하였다(Simbulan 1983, 280).

그러나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1985년에는 아키노를 비롯한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미군기지에 대한 입장유보를 피력했다. 이는 다가올 선거와 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고려한 정치적인 선택이었으며, 국민 전체적인 여론에서도 미군기지의 유지에 찬성하는 쪽이 반대하는 쪽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여러 여론조사결과가 나타났다(Greene 1988 11). 이처럼 미군기지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필리핀의 일반국민들은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에 비해 사회적 가치나 도덕적인 타락과 같은 미군기지들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Jimenez et al. 1988), 당시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러한 국민적인 성향을 부추겼던 것으로 보인다. 미군기지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은 아키노 정부의 수립 이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론조사기관(Social Weather Station)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미군기지유지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1986년에는 약 50%, 1989년 9월에는 54%, 1990년 4월에는 53%, 그리고 1990년 11월에는 61%로 나타났다(Carro-Guevara 1997, 490). 그러나 행정부나 의회에 포진하고 있는 많은 인사들과 대다수의 언론들은 기지유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함으로써 기지협상은 처음부터 난항이 예상되었다.

필리핀 측 협상 팀의 부단장이었다가 자진 사퇴한 벵존(Alfredo R.A. Bengzon) 보건부 장관의 관찰에 따르면 소수의 보수주의 인사들의 “우리는 자존심만 먹고 살 수 없다. 미국이 원하는 한 머물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주의 인사들의 기지철수로 인해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고통에 관계없이 “즉각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Yankee, go home)”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이 있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필리핀 국민들은 그 중간 정도에 머물렀다. 그는 실용주의와 자존심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이 둘은 결코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로 보면서, “미군기지협상은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시도였고, 그 자존심은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의미였지, 협소한 수구주의나 극도의 이상주의의 추구가 아니었다”고 회고했다(Bengzon 1997, 309-310).

미군기지 철수가 불쾌한 결별보다는 건설적인 이별이 되도록 협상에 임하자는 것이 필리핀 측의 자세였다. 미군기지의 유예기간은 필리

핀 측의 5~10년과 미국측의 10~12년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보상과 관련하여 필리핀 측은 기지유예 기간인 7년 동안 매년 8억 2,500만 달러만큼의 혜택을 3억 달러의 현금, 1억 달러의 해외군사지원, 3억 7,500만 달러의 필리핀의 미국시장접근 확대, 매년 5,000만 달러의 부채 탕감의 명목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제안은 매년 5억 2,000만 달러만큼의 혜택을 2억 달러의 해외군사지원, 1억 2,000만 달러의 경제지원기금, 4,000만 달러의 개발지원, 1억 6,000만 달러의 다자간 지원기금의 명목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금액에는 공식적인 개발 지원금(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총 3억 2,000만 달러로 당시 필리핀에서 받고 있는 연간 4억 8,100만 달러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이었다(Bengzon 1997, 156-160). 여러 차례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필리핀은 피나투보(Mt. Pinatubo)화산 폭발이라는 재난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클라크 미공군기지가 사실상 폐쇄되고 인근 다른 기지들도 흘러내리는 화산재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었다. 협상력을 상실한 필리핀은 결국 수빅 해군기지 하나만 협약에 포함하여 최초 년도에 3억 6,300만 달러를, 그리고 이후 9년간 매년 2억 300만 달러의 보상을 받기로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Bengzon 1997, 251). 필리핀 측의 요구는 거의 무시되었고 미국 측의 주장이 온전히 반영된 협상안이 승인절차를 위해 필리핀 상원의회에 전달된 이후에도 협상안이 상원의회에서 거부될 것을 염려하여 아키노 행정부는 군중집회를 개최하는 등 상원의원들에게 다양한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의원들에 의해 협상안의 승인이 거부되자 이의 번복을 위해 국민투표와 같은 방법을 모색하는 등 미국의 심기를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벵존의 회고에 따르면,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던 1991년 6월 피나투보(Pinatubo) 화산이 폭발하였을 때,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이 와서 도와 줄 것으로 기대했다. 즉 자진해서 보다 후한 기지협상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의 협상 팀은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협정상의 지원규모를 삭감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태도는 우리 상원의원들로 하여금 더욱 쉽게 협정거부를 결정하게 만들었다.” 미국 측의 태도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은 협상이 난항을 겪던 1990년 9월 20일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협상대표의 말이다. “그대들이 무엇인데 초강대국인 우리더러 나가라고 하느냐, 우리가 원하고 또 준비가 되었을 때 떠날 것이다”(Bengzon 1997, 305). 그는 또한 필리핀 상원의 승인거부가 결정된 후, 1991년 9월 25일에 미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제 형과 동생의 형제관계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 심기를 토로했다(Castro-Guevara, 1997, 486). 물론 아미티지 개인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는 미국을 대표하여 협상에 응한 협상대표로서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인식의 많은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미군기지 철수는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외교적 협상절차를 통해 결정지어졌다. 점차적인 미군기지의 철수는 필리핀 정부의 정책방향이었지만 즉각적인 철수라는 결과는 양국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예기치 않았던 하나의 사건이었을 것이다. 당시의 필리핀 국내 여론도 미군기지의 유지에 월등히 우호적인 상태였고, 다음 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상태에서 상원의원의 과반수(23명중 12명이 반대)가 협정에 반대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담보하면서까지 미군기지의 철수가 필리핀 민족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말해준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초강대국인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여 순순히 물러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냉전의 종식이 임박해 오고, 또 미 행정부의 예산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국내외의 많은 군사기지들이 모두 필요치 않았고, 또한 그것들을 모두 유지하기 힘든 상태였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 내의 몇몇 군사기지들을 폐쇄하는 조치들을 이미 취하였고, 1988년에는 스페인에 있던 일부 공군기지(Torrejon Air Base)를 철수하기도 했다. 단지 필리핀에 있는 기지들은 그 전략적 위치, 완벽한 기반시설, 그리고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 기지의 철수 및 재배치에 드는 손실 등을 감안해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였다(FSI 1989). 그러나 국제사회가 정치적 군사적 경쟁보다는 경제적 경쟁이 더 중요시되는 탈냉전시대로 전이되고, 화산재로 뒤덮인 기지의 엄청난 복구비와 필리핀 측으로부터의 기지보상금에 대한 과도한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되는 것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IV. 맺음말: 미군기지 철수의 재인식

미군기지의 철수가 결정된 직후 닥쳐올 경제적 어려움과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한 야기될 지도 모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필리핀 국민들은 많은 염려에 휩싸였다. 그러나 미군철수 이후 5년이 지난 1996년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의 리치버그(Kenneth Richburg)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필리핀은 미군기지들로 인해 예상되었던 지원금액과 맞먹는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만약 필리핀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투자까지 합한다면 거의 3배에 가까운 경제개발 원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수빅의 변모는 이전의 추측을 뒤엎었고, 예상했던 경제재난은 도래하지 않았다”(Bengzon 1997, 301). 이처럼 그간의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 1996년에 수빅은 외국인 투자 18억 달러를 유치하고 66,000명에게 직장을 제공하는 활기찬 자유무역항으로 거듭 났었다. 1996년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담을 수빅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변모된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군인으로서 돌아갔던 미국인들이 이제는 투자자가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많은 필리핀인들은 이제야 미국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파트너가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Cartro-Guevara 1997, 493).

필리핀 내 미군기지는 양국간 상호관계 발전의 주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식민지 전쟁의 결과로 건설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3

년간의 마-필리핀 전쟁과 그 후의 식민지 정책은 필리핀의 민족주의 발전의 맥아였던 필리핀 혁명정부의 이념과 사상을 강제적으로 변모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필리핀이 1964년 이래 국가의 독립기념일을 미국에서 독립을 부여받은 날인 1946년 7월 4일에서 혁명정부가 독립을 선언한 1898년 6월 12로 변경하여 기념하는 것은 필리핀 국가의 정통성을 혁명정부에 두고 필리핀 민족의 지향점을 혁명정신에 입각한 민족주의에 두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군기지의 철수는 이후 마-필리핀 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규정지어지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필리핀 민족주의의 역사적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필리핀의 경제발전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지배엘리트들에 의해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독점적인 특권을 이용한 단기적인 이윤추구가 필리핀 경제발전부진의 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문제는 독립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온 “약한 국가”라는 제도적 결핍으로 인해 해결의 여력을 가질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국가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루어낸 많은 서구 선진국가들과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국가경제 발전의 기반을 건설하는데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한 강력한 개발국가가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분석한다(Lichauco 1988; Rivera 1994).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났겠지만 미군기지 철수 후 1992년 집권한 라모스 정권 동안은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로 사회적인 평화와 높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하기도 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을 바탕으로 각 국가들의 영토에 대한 경제의 의미가 점점 줄어들어 가는 세계화의 시대에 민족주의라는 개념의 강조가 시대착오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상의 공동체로서, 이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민족주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더욱 더 그 의미와 가치가 부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이라크전쟁을 놓고 국제관계가 법과 정의보다는 힘의 원리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초강대국의 적이 된다는 것은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다. 또한 민족주의가 현실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국제적인 질서에 반하여 맹목적으로 타국을 배척하는 수구주의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민족의 운명을 상당부분 책임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단순히 일반대중의 일시적 감정에 영합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민족의 발전을 위해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필리핀 상원의원들에 의해 협정이 거부된 직후 56%의 필리핀 국민들은 아키노 행정부가 상원의 결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년 후에는 82%의 국민이 행정부가 그 결정을 따르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Castro-Guevara 1997, 492). 지도자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이끌어 갈 때 많은 경우에 국민들은 그들이 이끌어는대로 따라간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주기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가 미군기지를 국내에 유지하고 있는 다른 많은 국가들과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미군기지가 설치되게 된 이유도 독일과 일본 같이 전쟁에 패한 역사적 결과로 기인하기도 하고,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와 같이 미국의 전략적인 목적에 의한 결과인 것처럼 다양하다. 한국의 현실은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주둔하여 남북간 힘의 균형의 한 축으로서 전쟁억제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미국에서 보는 각 국가들의 전략적인 가치나 정치적, 경제적 목적도 다양할 것이다. 이처럼 필리핀의 경우를 현재 미군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각 국가들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상의 정치공동체인 “민족”을 끊임없이 발견해 가는 창조적인 노력인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국내에 다른 민족의 군사적 존재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 왔으며, 또한 민족주의의 앞길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놓고 필리핀의 경험을

참고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불란 (Simbulan 1983, 276)의 글에 인용된 예일대학의 Lapswel 교수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이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국가안보의 한 특별한 의미는 외부세력의 강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다. 다른 국가의 군사적 보호에 의존하는 국가는 그 누구도 자국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강압에서 구해줄 수 없는 슬픈 운명에 있다.”

참고문헌

- Abinales, Patricio N. 2001. *Fellow Traveler: Essays On Filipino Communism*.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 Anderson, Benedict.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The Thetford Press Ltd.
- Bengzon, Alfredo R. A. 1997. *A Matter of Honor, The Story of the 1990-1991 RP-US Bases Talk*. Manila: ANVIL Publishing, Inc.
- Carlson, Keith Thor. 1995. *The Twisted Road To Freedom, America's Granting of Independence to the Philippines*.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 Castro-Guevara, Marita, ed. 1997. *The Bases Talks Reader, Key Documents of the 1990-91 Philippine-American Cooperation Talks*. Manila: Anvil Publishing, Inc.
- Constantino, Renato. 1975. *The Philippines: A Past Revisited*. Vol. I. Manila, Philippines.
- Foreign Service Institute. 1989. *Factbook: U.S. Facilities and Their Alternatives*. Manila: Research Development Center, FSI.
- Greene, Fred. 1988. “Issues in U.S.-Philippine Base Negotiations.” Fred Greene ed. *The Philippine Bases: Negotiating For The Future American and Philippine Perspective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Ileto, Reynaldo C. 1998. *Filipinos and their Revolution, Event, Discourse, and Historiography*. Quezon City: Ateneo De Manial University Press.
- Jimenez, Pilar Rmos, Ma Javier, and Elena Chiong. 1988. *Social Benefits and*

- Costs : People's Perceptions of the US Military Bases in the Philippines.*
Manila : De La Salle University Press.
- Lichauco, Alejandro, 1988. *Nationalist Economics, History, Theory and Practice.*
Quezon City : Institute for Rural Industrialization, Inc.
- Lumbera, Bienvenido, 1996. "The Nationalist Literary Tradition." Elmer Ordonez
ed, *Nationalist Literature, A Centennial Forum*, Quezon City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 McCallus, Joseph P. 1999. *American Exiles In The Philippines, 1941-1996. A
Collected Oral Narrative*, Quezon City : New Day Publishers.
- O'Hanlon, Michael E. 2001. *Defense Policy Choices, For The Bush
Administration 2001-05*,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Paez, Patricia Ann. 1985. *The Bases Factors, Realpolitik of RP-US Relations*, Manila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of the Philippines.
- Rivera, Temario C. 1994. *Landlords & Capitalists, Class, Family, and State in
Philippine Manufacturing*, Quezon City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 Rafael, Vicente L. 2000. *White Love and other Events in Filipino History.*
Quezon City :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 Salgado, Pedro V. 1985. *The Philippine Economy, History and Analysis*, Quezon
City : R.P. Garcia Publishing Co.
- Sicat, Ma. Teresa, 1996. "The Philippine Nation in Literary Discourse." Elmer
Ordonez ed, *Nationalist Literature, A Centennial Forum*, Quezon City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 Simbulan, Roland G. 1983. *The Bases of Our Insecurity, A Study of the US
Military Bases in the Philippines*, Manila : BALAI Fellowship, Inc.
- Simbulan, Roland G. 1988. *A Guide to Nuclear Philippines, A Guide to the US
Military Bases, Nuclear Weapons and What the Filipino People Are
Doing About These*, Manila : IBON Primer Series.
- Sison, Jose Maria, 1989. *The Philippine Revolution, The Leader's View*, New
York : Crane Russak.
- Tan, Samuel K. 2002. *The Philippine-American War, 1899-1913*, Quezon City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 Weekley, Kathleen, 2001. *The Communist Party of the Philippines 1968-1933 : A
Story of Its Theory and Practice*, Quezon City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ABSTRACT

Withdrawal of the US Military Bases in the Philippines : Implication on Filipino Nationalism

KIM Dong-Yeob

Lecturer,
Chung-Ang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The Philippine revolutionary movements against the Spanish colonial power laid the foundation of Filipino nationalism in which the people pursued liberty, equality, and prosperity. Filipino nationalism was reshaped by another colonial power, the United States. The Philippines indebted the modernization of its politics and economy to the US, but it was not free of charge, but at the expense of the idea of Filipino nationalism,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Philippine revolutionaries. The US included its own colonial purpose into the "official nationalism" in the Philippines. The US military bases in the Philippines were born after its colonial war, and being placed in the center of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hus, the withdrawal of the bases cast a significant implication to the development of Filipino nationalism. It is still a big question whether this globalizing world truly make the norms of nationalism be a useless fossil to hang on for the "imagine community" of its survival and prosperity.

Keywords : Nationalism, the Philippines, Filipino Nationalism, US Military Bases